

사나이 조각상

알지 못할 병에 걸린
사나이 하나
고통속에 허덕이다
홀로 바람결에 나뒹가
얼마나 즐거웠던가
웃음 익던 어제날이
그리움에 젖어
침묵속에 추억만 짝트네

사나이여 어서
파도 세찬 바다에 뛰어들라
모든 고통을 하얗게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대는
바다속에서 새 희망 찾을것이려니
갈매기는 또다시
그 무엇을 찾아
파도를 누비여간다

전승기시집

사나미 조각상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인덕
책임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男子汉雕塑: 朝鲜文 / 全胜基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6

ISBN 978-7-5449-0626-5

I. 男… II. 全…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84087号

男子汉雕塑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6.5 字数: 17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26-5 (民文)

版次: 2009年6月第1版

2009年6月第1次印刷

印数: 400册

定价: 19.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시집을 내면서

전승기

펜을 놓은지 20년이 지났다.

성냥갑만한 시 한두수를 신문과 잡지에다 발표한후 흥분되어 밤잠을 못 이루던 20대의 젊은 그 시절이 그림다.

시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를 쓰던 그 시절(하기는 지금도 모르지만) 자신의 회로애락과 미래에 대한 환상을 묶으면 시라고 생각하며 시를 써왔다.

저의 아버님은 동네에서도 이름난 애주가였다. 그 유전자를 넘겨받은 나도 술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술을 마신 후 시쓰기를 좋아했는데 시 거개가 취중에 쓴것이다.

사람들이 잘 읽어보지도 않는 시를 왜 나는 그토록 좋아하고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남이야 읽든 안 읽든 자신이 하고싶은 말을 시로 만들어놓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수 없었다. 그래서 시인은 자아도취에 살아간다는 말이 나왔는가보다.

세상은 둥글다. 달도 둥글고 태양도 둥글며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도 둥글다.

◇ 2 ◇ 사나이조각상

술상도 등글고 술잔도 등글고 차바퀴도 등글다. 희로애락이 흘러넘치는 인생이란 차에 눈물과 휘발유를 넣고 동북 한끝으로부터 이 나라의 남쪽끝 해남도에 와서 내내 상업이라는 무한경쟁의 세찬 파도에 부대끼면서도 사철 푸른 야자나무숲의 노래소리에 가슴이 부풀기도 한다. 또 끝없이 펼쳐진 남해바다 지평선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곤 한다.

이 세상에 올 때는 그 누구나 울면서 온다. 사는 동안 너무 힘들어 올 맥마저 없어서인가 인간은 떠나갈 때 다른 사람의 울음속에서 인생을 마친다.

이제 나는 20여년 동안 놓았던 펜을 다시 들고싶다. 자신이 겪었던 옛일들을 시가 아니라 소설로 엮어보고싶다.

그동안 나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따로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많은 친구들과 교분을 두텁게 쌓으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온것이 가슴이 뿌듯하다.

백망중에 평론을 써주신 최삼룡선생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20년전의 줄시를 편집하여 시집 《사나이조각상》을 출판해주신 연변인민출판사 편집일군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드리는바이다.

2009년 4월 5일
해남성 삼아시에서

차 례

시집을 내면서/전송기

제1부 나는 행운아

거울	3
담배	4
나는 농민입니다	6
까치 우는 아침	8
박	10
호박꽃	11
가야금 타는 처녀	12
고추	14
가을바람	16
불 밝은 들창가에	18
나는 행운아	20
빨래방치	24
가을하늘	25
가을의 웃음	26
이슬	28
송화호 물새	29
송화호 어부	31
송화호의 맑은 물	33

제2부 사랑의 꽃바구니

기다리는 말, 망설이는 말	37
집도 이웃, 논도 이웃	39
그 말이 나는 좋아	40
다리	41
빨간 모자	43
돌이 되었으면	44
그대와 나	46
첫사랑(1)	48
첫사랑(2)	50
두렁길	52
논고물	54
논고물소리	56
사랑 익는 다리	58
안해	61
밤 모르는 처녀	63
마음의 언덕에	65
밤이면 밤마다	67
산모	68
그녀는 갓어도	70
밤차	72
밤의 웨침	74
너와 나	76
첫날밤	78

가신 님	81
렐차 된 마음	83
마음의 죽음	85
밤녀인	86
우물	87
저의 마음은 바다래요	88
안해의 웃음	90
진정	92
우리 가정	93
사랑구좌	94
마음의 밀고자	95

제3부 남포의 인생

운명	99
락엽	102
마음의 들창	104
5월의 하늘	106
반디불인생	108
나는 미친 사람	110
내 마음의 꽃나무	112
나의 웨침	114
남포의 인생	116
나의 벽시계	118

◇ 4 ◇ 사나이조각상

한순간을 살더라도	119
사나이조각상	120
나의 웃음	122
항선 찾는 갈매기	124
나는 태양	127
길	130
나의 길	131
사나이 절반은 눈물	133
인생은 도박장	135

제4부 장미빛울음소리

시간	141
잊지 못할 소원	142
꽃망울	144
감자	146
해	147
황혼	149
달처럼 해처럼	150
상념	152
장미빛울음소리	154
인간과 물	156
고향(1)	159
고향(2)	160

밤의 색깔	161
망향	163
리별	164
숨소리	165
메아리	167
사랑 파는 광고	168
가을의 묵상	170
어머니	172
자화상	174
나의 생각	175

한 성공한 기업인의 청춘시절의 웨침/최삼룡	177
------------------------------	-----



제1부 나는 행운아

거울

큰 거울 작은 거울
포전에 내다 걸었습니다
푸른 하늘 비끼여
맑디맑은 거울
농민들의 마음 속속들이 보입니다

이랑따라 가야금줄 메우고
조리줄줄 도미썰 도미썰
봄날의 선물을 조절하는
농민들의 마음도 속속들이 보입니다

1983. 5. 14.

담배

한줄기 애원의 연기
맘속에 하소연의 심지가 있는가
어둠을 두드리는 말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밤마다 퇴마루에 앉아 잠 못 드시며
아버지 말아 피우던 엽초는
때때문에 가슴에 지핀 모닥불이었습니다

꿈 주는 시대 우리 가슴속 가장 깊은 곳
조약돌도 숨 쉬며 일어서던 80년대 초봄
할일없이 논머리 서성이던 나
해살을 감아 말아 피우던 엽초는
래일로 칠색무지개 다리 놓느라
구름 넘어 뚱뚱 띄우던 연이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던 장알들이 찾아와
두손바닥에 척척 자리 잡는 재미였습니다

물결치는 논벌의 속삭임에

별빛도 조용히 내려와 머무는 저녁
꽃냄새 가득한 두렁길을 걷노라니
아직은 농사일 고되고 힘들지만
하냥 미래에 아름다운 동경을 걸었기에
내 오늘 흠족히 엽초를 말아 피웁니다
담배연기는 별빛에 부서지며 물들며
저기 저 금빛자락 펼치며 날려갑니다

1984. 9. 8.

나는 농민입니다

북경행 열차에서
서로 오가는 한두마디 인사에
어느사이 스스럼없는 사이 되어
도시처녀는 나에게 물었네
- 어디에서 사업하시나요?

무엇이라 대답할가?
의젓한 젊은이라도 농민이라면
처녀들의 깔끄러운 눈길 차례지기에
어찌다 있는 출장길에
촌놈이란 허울을 감추느라 애썼던 지난날...

언젠가는 야부리담배공장에 있다고
거짓자랑을 늘어놓다가
진짜 야부리담배공장의 간부 만나
혼쫄까지 맞은 나였으니...

허나 내 오늘은
넥타이 매고 려행 떠난 농민
빈곤을 물어버린 농민이다
하기에 나는 뗏뗏이 대답했네
- 나는 농민입니다!

1984. 8.